


영원을 향해가는 유목민
예담교회
SINCE 2008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설교요약

/결단과 헌신

목장모임, 주일학교

프리토리아	김장원 문현진	유창환 함은정 손은미
베를린	조혜정 김영관	정영 박애희 정경화
키르기스	이중혁 양새롬	정광 이윤경 전민교 양경모 안제호 김지인 이정후 정다운
퍼스	권영준 유나윤	다윗부
땅 끝까지	김현수 강아란	윤혜윤 박용수 문선희 조현선
발리	양순모 서은비	김은재 장해청 신상민
나짱	권오윤 김인지	김석원 이수민 김동규 김희진
우름치		양승구 김혜량 이옥희 김중범 김연숙
주일학교	다윗	박소울 김지아 주송현 신지호 김재인 주송하
	믿음	김서울 박지웅 김성준 김수경 김태인 신유나 박지훈 정시우 정시연 박도겸 김서아 유지안 박지민 김수호 유니아
	소망	양희건 유시우 김은호 김해인 정이진 양하은 이강 김민호 김리아 이지윤

교회 주소

우)13503, 별말로 40번길 3 성산빌딩 4층
(옛주소 : 야탑3동 272-4 성산빌딩 4층)

교회 관련 링크



교회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오시는 길
(네이버지도)

모임 안내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2부	오전 11시	올리브탕
	소망부	오전 11시	본당
	믿음부	오전 11시	본당
	다윗부	오전 11시	본당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김승관
사역위원 김장원 권영준
대표전화 / 070 - 4409 - 8291

협력 선교사/교회/단체

지역	협력 선교사/교회
프리토리아	김보근 선교사
베를린	박희명 선교사
키르기스	K 선교사
퍼스	변성모 목사
땅 끝까지	이강욱 선교사
나짱	K 선교사
발리	최문식 선교사
우름치	L 선교사

헌금안내

신한은행 100-025-549240
예금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담교회

주일예배순서

- ★ 일어설 수 있는 분은 같이 일어서주
세요 인도 : 김승관 목사
- 찬양 찬양팀
- 환영과 광고
- ★ 임례찬송 다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 ★ 사도신경 다같이
- 봉헌찬송 다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통415)
- 공기도 1부: 김현수 집사, 2부: 손은미 집사
- 간증 1부: 김지인 자매
- 성경봉독 인도자 로마서 2장 1-16절
- 말씀선포 김승관 목사 심판주
- ★ 찬양과 헌신 다같이 축복의 사람
- 강복선언 설교자

목장예배순서

- 애찬 다같이
- 올리브블레싱 다같이
- 찬양 인도 / 찬양부장
- 광고 목사 (지난 주보 목회칼럼을 읽어 주세요)
- 성경공부 인도 / 목장교사
- 나눔 다같이 (감사 나눔을 먼저 하세요)
- 중보기도 인도 / 목자
- 선교와 전도 인도 / 목자 (선교사님과 VIP 를 위해 기도하세요)

일정안내		식사 준비	주요 교회행사
수요기도모임			
04.22 양순모	04.26 발리나짱		
04.29 김정원	05.03 프리토리아.퍼스	04.24~04.26	말씀 사경회
예배당 청소		예배기도	
04.26 발리나짱	04.26 서은비	김장원	
05.03 프리토리아.퍼스	05.03 양새롬	양순모	

지난 주 현황		현금		감사의 제목	
실입조	1,790,000	작정현금	910,000	• 지인 무사 귀국 감사합니다.	
주일현금	310,000	기타현금	110,000	• 지인이 건강하게 돌아와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다윗부현금	40,000	선교현금	100,000	• 생일 감사합니다.	
감사현금	30,000	건축현금	20,000		
목적현금	200,000	성찬현금	-		

목장별 VIP 명단	
목장	VIP 명단
프리토리아	유현철 김현아 김지혜 문기식 송가희
베를린	김수진 이혜림 이혜주
키르기스	박주혁 한준호 박수진 김완영 최재광 강성은 김성호 황정준
퍼스	이승주 정보민 김성원 김장운 신은영 최민영
땅 끝까지	안태홍 박상현 김현석 조희태 배민경 문미선 이OO
나짱	이진아 이세라 민지은 김소혜 진서울
발리	우경민 전지훈 장안기(홍콩) 하이(베트남) 심현섭

- ### 교회소식
- <1만시간 기도운동 누적시간: 247시간 43분>
- 오늘 식사 후 사경회 준비 청소 있습니다. 목장별 청소 구역 및 담당은 광고시간 참고해주세요
 - 봄 사경회
 - 24일 금요일집회 8시,
 - 25일 토요일 1시(집회 후 3시쯤 휴식 및 간식타임 30분),
 - 25일 토요일 3시 30분,
 - 26일 주일 1시 주일예배 및 마지막 집회

목회칼럼

간증 - 키르기스 목장 김지인 자매

안녕하세요. 키르기스 목장의 김지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느꼈던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로 소통하는 것에 있어 크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잘 못해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언어라기보다 제가 원래 낮을 많이 가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교회 말씀반과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목장 식구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습관이 된 것은 새벽기도였습니다. 원래 아침잠이 많은 편인데, 어쩌다 보니 계속 새벽기도를 가게 되었고 그중 3달은 거의 매일 출석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받기도 하고, 세컨 비자를 위해 타 지역 고기공장에 가게 된 동생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의 크기가 생각보다 좁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목장과 친구들 기도만 해도 이미 체력이 소진되는데,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다른 종족(?)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숙제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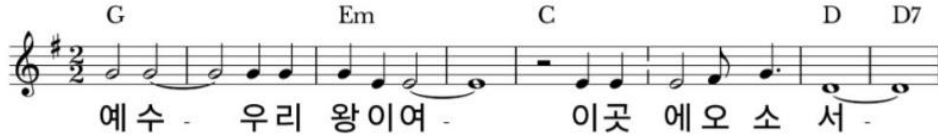
교회 부서 지원 때는 유아부에 지원했는데, 바로 다음 주에 스카우트를 당해서 새로 생긴 사랑봉사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돌보는 부서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하지 마"를 외치며 아이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같이 드러눕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팔 벌려 안아달라고 오거나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는, 말보다 더 깊게 소통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과도 아이들의 일상과 어려움을 나누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도를 나가서도 드라마틱한 열매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은 정말 예상치 못한 VIP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트레인을 착각해서 "아 이거 맞나?" 하면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는데, 옆에 계시던 베트남 아주머니께서 "그거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걸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대화가 시작됐고, 결국 번호를 교환하고 그날 목장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프랑스에서 20년 넘게 셰프로 일하시다가 남편과 사별하시고 멜번으로 돌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목장이라는 공동체가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티 전도 때는 한 중국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 18살의 '호나'라는 친구였고, 멜번대에서 과학을 전공하고 호주에 온 지 한 달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어설피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같은 질문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면서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영접 기도문 중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부분에서는 "이건 좀 어렵다"며 따라 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문자로도 "나는 신의 존재는 믿지만,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진심 어린 전도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호주에 다녀와서 제가 크게 바뀌었냐고 하면...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조금 피곤해지는 편이고, 기본적으로는 냉소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 하나님의 사랑과 주변 분들의 섬김 속에서 지낸 것은 분명히 과분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신앙도, 삶도 꼭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청문회식 잘 모르겠습니다"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일단은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Words & Music by
전승연
랑이파파 채보



사도신경

인도자 : I.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인도자 : II.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인도자 : III.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통일 415)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

은혜와 사랑
F. R. Havergal, 1873
조금 빠르게

I could not do without Thee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요쁨과 안락을 전히 주시는 이시니라 (행 17:25)

ENDSLEIGH: 7&7&D.
S. Ferret(1817-1874)

1. 주 없 이 살 수 없 네 죄 나 인 의 구 주 여
2. 주 없 이 살 수 없 네 죄 나 인 의 구 주 여
3. 주 없 이 살 수 없 네 죄 나 인 의 구 주 여
4. 주 없 이 살 수 없 네 죄 나 인 의 구 주 여

그 힘 내 이 귀 없 영 조 은 한 고 의 은 보 부 직 고 배 죽 은 독 피 하 간 속 로 며 구 에 내 구 해 음 생 속 하 없 소 끝 서 다 을 도

구 내 주 사 주 주 박 나 의 는 에 운 사 나 나 풍 의 의 의 랑 으 생 마 일 로 명 음 때 홀 또 뒤 날 리 나 알 아 켜 주 보 힘 주 주 시 혈 이 리 요 니

내 주 내 내 소 님 마 절 망 을 위 계 나 의 지 로 신 위 하 하 주 로 여 사 님 을 영 혜 온 힘 광 율 케 이 됩 언 하 됩 니 으 시 네 다 아 멘

축복의 사람

♩ = 70 작사/곡 설경옥

주 계 힘 을 얻 고 그 마 음 에 - 시 온 의 대 로 가 있 는 그 대 는 -

하 나 님 의 축 복 의 사 람 이 죠 주 님 그 대 를 너 무 기 뻔 하 시 죠 - 주 의

집 에 거 하 기 를 사 모 하 - 고 주 를 항 상 찬 송 하 는 그 대 는 -

하 나 님 의 축 복 의 사 람 이 죠 주 님 그 대 를 너 무 사 랑 하 시 죠 - 그 대

설 길 은 아 름 다 운 찬 송 그 대 헌 신 은 항 기 로 운 기 도 그 대

가 밍 는 땅 어 디 에 서 라 도 - 주 님 의 이 름 높 아 질 거 예 요

<http://cafe.daum.net/lovesm>